

우물안 개구리 ‘韓 금융’… 핀테크 따라잡을 전환 필요

금융시장 성숙도 ‘74위’로 낮아
자체 경쟁력·경제기여도 떨어져
생산적 시스템 패러다임 필요

“왜 금융에는 삼성전자가 없는가(?)?”
우리 금융산업의 낙후한 현실을 꼬집는 질문이다. 이자장사로 버티며 ‘우물안 개구리’로 안주한 결과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전통적인 금융산업은 성장한계에 부딪혔고, 빠르게 변하는 핀테크 산업을 따라잡지 못하는 은행은 현재 지위가 강등되거나 자금증개 기능조차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금융시장 성숙도는 74위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노사간 협력(130위), 대출용 이성(90위), 은행건전성(91위) 등에서 나쁜 평가를 받은 탓이다. 시장 규모는 13위로 평가됐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덩치는 커졌지만 자체 경쟁력이나 경제 기여도는 갈수록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3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금융 및 보험이 1분기 국내총생산



(395조9328억원(계절조정계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4% (24조3161억원)였다. 이는 전분기 6.04%보다 0.10%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의 기여도 6.51%(25조 7902억원)보다는 낮다.

일자리도 매년 줄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말 8만 7746명에 달했던 시중·지방은행 임직원 수는 지난해 말 7만7756명으로, 4년간 1만명 가량 줄었다. 인터넷은행의 등장과 IT기술의 발달로 은행들이 잇따라 오프라인 점포를 축소하고 대규모 명예

퇴직을 시행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선 결과.

같은 기간 보험사 임직원 수도 5만 1908명에서 4만7533명으로 감소했다. 카드사 상용직은 1만1200명에서 1만900명으로, 계약직 등은 2900명에서 1900명으로 각각 줄었다. 카드모집인 감소(1700명)까지 합치면 지난해 줄어든 카드사 일자리는 총 2900개를 기록했다.

소득 하위 40% 계층의 금융회사 대출 경험으로 보여주는 ‘금융 포용성 지표’(2016년 기준)도 우리나라 13.2%로 미국(23.2%), 영국(22.3%), 싱가포르

(16.6%) 등에 한참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금융의 발전은 대표적인 자금 수요자인 기업의 금융 제약을 완화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개척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말한다.

양적인 성장에 비해 기여도가 낮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총자산(은행계정)은 2363조5000억원으로 2016년말(2268조1000억원) 대비 4.2% 증가했다. 원화대출 잔액은 1508조원으로 전년보다 5.7% 증가했다. 기업대출(817조3000억원)은 대기업대출 감소세가 이어진 가운

데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660조4000억원)은 국내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

다만 GDP기여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않는다.

우리보다 금융업 비중이 높은 아일랜드, 미국과 영국 등은 실물경제와 고리된 금융부문의 과한 성장으로 인해 금융위기를 겪었다. 또한 한국도 금융산업의 비중은 2002년(7.5%), 2003년(7.3%)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카드사태의 단초가 됐다. 신용카드가 이른바 카드사태로 이어지면서 대규모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내수침체를 심화시켰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금융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혁신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금융연구원(KIF) 이대기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열거주의 규제체계는 금융업권 간, 금융 회사 간 경쟁을 통한 혁신 유인이 부족하다”면서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고, 핀테크 혁명 등 환경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외환보유액 확충, 기업대출 둔화에 영향”

한은 경제연구원 보고서

외환보유액 확충 과정에서 시중 가용 자금이 감소하여 기업 대출 증가율을 둔화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외환보유액 확충에도 불구하고 국내 민간자금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윤영진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5월 31일 발표한 ‘BOK 경제연구: 외환보유액 축적과 은행대출’에 따르면 외환보유액과 기업대출 증가율은 통계적으로 마이너스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은행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외환보유액 확충 과정에서 기업의 대출증가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 분석했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1415 억 달러에서 2432억 달러로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이 25억 달러 확충될 경우 통화안정증권 발행시장 참가 은행은 미참가 은행에 비해 대출증가율이 0.4%포인트 더 낮게 집계됐다. 외은지점의 대출증가율은 국내 은행보다 1.6%포인트 더 낮았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입할 때 국내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매각한다”며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늘어난 통화량 조정을 위해 국내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매각하는 ‘불태화(不胎化)’ 정책을 펼친다”고 설명했다.

불태화 정책은 외국자본이 유입되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할 경우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취하는 정책이다. 결국 외환보유액 확충은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에 저축하는 것으로 국내 자금을 해외로 보내는 과정에서 시중 가용 자금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윤영진 부연구위원은 “외환보유액 확충에 따른 시중 자금 감소 효과는 중앙은행이 불태화 채권을 발행할 때 이에 참여하는 은행에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통안증권 발행시장에 참가하는 은행의 대출증가율이 그렇지 않은 은행보다 더 낮다”며 “무위험대출거래에 집중하는 외은지점의 경우 불태화 채권 인수에 더 적극적으로 대출 축소 유인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금융권 데이터 공유… 공정한 경쟁 보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창업 청년창업인 간담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1일 “금융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청년 창업자 등이 출발선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1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은행권 청년창업재단(D.CAMP·디캠프)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 창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지난 2012년 5월 설립된 디캠프의 지난 6년간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스타트업 및 청년창업인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 위원장은 청년 창업인을 대상으로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앞으로 다가오는 데이터 주도 경제에서는 누구나 기회를 얻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경쟁의 장이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강남 디캠프에서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그는 “금융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활용을 보장할 것”이라며 “청년 창업자가 데이터 부족으로 출발선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미래 유망산업으로 평가받는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업신용정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위원회

‘기업 CB(신용평가사)’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본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디캠프 설립 이후 창업생태계 저변이 확대됐는데, 앞으로도 국내 창업 생태계 허브의 대표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달라”며 “(금융위도) 금융이 혁신 창업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금융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체신화 기자 csh9101@

‘CT·MRI’ 더 촘촘히… 판독 정확해진다

정부가 영상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의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CT와 MRI의 촬영 단층면 간격은 전보다 촘촘해지고,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는 CT촬영에 대한 관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7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CT와 MRI 영상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

해 세부 검사기준은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머리 MRI 검사 시 절편(section) 간격은 2.5mm 이하에서 2.0mm 이하로 조정된다. 촬영 간격이 촘촘해질수록 의료진 판독이 정확해질 수 있다.

개정안은 장비 성능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 영상해상도와 검사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검사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에서 영상판독을 저해하는 노후장비와 장비결함 등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기로 했다.

/유재희 기자

질본 “야생진드기 SFTS 감염 주의하세요”

올해 야생진드기에 물려 생기는 종종 열성혈소판감소증(SFTS) 환자가 지난해 보다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야외활동 시 SFTS 감염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3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SFTS로 확진된 환자는 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명보다 크게 늘었다. SFTS로 인한 사망자도 지

난해 같은기간 1명에서 올해 7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SFTS 환자 중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고령이었다. 성별은 여자 14명(77.8%), 남자 4명(22.2%)으로 여자가 더 많았다.

주로 농촌에서 낮은 자세로 일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다 감염된 사례가 많았다. 발생지역은 경북 4명, 제주·전북·경기

각 3명, 강원·경남·충남·부산·전남 각 1명 이었다.

SFTS는 주로 4~11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38~40도)과 오심, 구토설사, 식욕부진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

질병관리본부는 “SFTS는 예방백신과 표적치료제가 없어 농작업, 풀 접촉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